

디미트리 구타스, 정영목 옮김, 『그리스 사상과 아랍문명』 (글항아리, 2012), 376쪽
[Dimitri Gutas, *Greek Thought, Arabic Culture: The Graeco-Arabic Translation Movement in Baghdad and Early 'Abbasid Society (2nd-4th/8th-10th Centur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오승현[†]

과학사에서 7-9세기는 아랍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아랍 세계는 7세기 이후 무함마드의 이슬람교를 구심점으로 통합되고 점차 외연을 확장하면서 고도의 문화적 활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 철학, 의학, 연금술, 천문학, 점성술, 수학, 광학 등 전통 시대의 중요한 자연 지식과 기술은 당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런 성취를 대표하는 인물들도 빼놓을 수 없다. 서유럽 세계에 철학과 의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이븐 시나(Ibn Sīnā), 광학의 신기원을 이룩한 이븐 알 하이탐(Ibn al-Haytham),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주의 철학을 주해한 이븐 루시드(Ibn Rushd), 황-수은설을 제창하여 서유럽 중세 연금술의 골격을 제공한 자비르 이븐 하이얀(Jābir ibn Hayyān) 등의 인물은 과학사 개론서에 언제나 등장하는 이들이다.

이러한 아랍 과학의 눈부신 성취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원인은 고대 그리스의 지적 유산을 입수해 아랍어로 번역한 사업이다. 압바스(Abbasids) 왕조의 7대 칼리프 알 마문(al-Ma'mun: 재위, 813-833)은 828년 바그다드에 설립한 ‘지혜의 집(Bayt al-Hikma)’에서 그리스의 자연 철학과 수학, 의학 문헌들을 ‘본격적’으로 수집하고 번역 작업을 후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아랍 문명의 번역 운동을 대표하는 산실로 기억되고 있다.

과학사 개론의 수준에서 아랍 과학에 대한 ‘상식’은 대략 이 정도로 정리된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는다. 왜 아랍 세계는 200년이 넘도록 고대 그리스의 학문을 적극 수용하고 연구했을까? 그것이 어떤

[†]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persival@gmail.com

측면에서 실용성과 관련이 있었을까? 번역 사업은 알 마문의 짧은 재위 기간에만 융성했는가? 또한 번역 사업과 아랍의 과학적·철학적 전통의 발달은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왜 융성했던 아랍 과학은 10세기 이후 주변화 되면서 쇠퇴하였을까? 이슬람이 종교적으로 보수화되면서 외래 학문을 적대시했기 때문인가?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우리의 짧은 상식을 재차 음미해본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아랍의 과학에 대해 상당 부분 ‘몰역사적’인 설명에 안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디미트리 구타스는 고대 그리스의 유산이 이슬람 사회의 역사·문화 속에서 수행한 역할, 그 영향력의 확산과 의미를 연구한 세계적 권위자로서 이러한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이 책에서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아랍의 번역 운동을 알 마문의 ‘지혜의 집’에서 집중적으로 수행된 활동으로 파악하려는 기존의 관점으로는, 수 세기동안 지속된 번역 운동의 전모를 밝히기 어려울뿐더러 번역 운동이 아랍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계몽 군주의 치적에 의한 ‘예외적’ 성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7세기 이후 아랍의 번역 운동과 과학적 성취, 그리고 쇠퇴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외래의 세속 학문과 자연 철학이 아랍의 주변부에 위치했을 뿐 아랍 문명의 핵심과는 구분되어 있었다는 ‘주변부 논제(marginality thesis)’와 같은 역사 해석의 틀을 경계한다. 저자에 따르면, 역사가가 이러한 틀에 얽매일 경우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료를 적극적으로 독해하지 않고 오히려 간과하기 쉬우며, 문화에 대한 본질적이고 물신적인 가정을 채택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아랍 세계의 번역 운동을 이해하는 저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선 저자는 압바스 왕조 초기에 추진된 그리스어-아랍어 번역 운동이 압바스 왕조의 창업자들이 우마이야(Umayyad) 왕조를 교체하는 혁명을 이룬 이후 제국을 반석에 올려놓기 위한 이데올로기 구축 작업과 긴밀히 연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압바스 왕조는 페르시아 사산 왕조의 중심지였던 바그다드로 수도를 옮기고, 왕조 개창의 조력자였던 사산 왕조의 문화권에 속했던 이들을 행정의 요직에 배치하면서 그들을 새로운 제국에 안정적으로 편입시킬 전략이 필요했다. 이 때 사산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은 정권의 조력자들은 이미 한 세기 전 막을 내렸던 페르시아 문화가 약탈자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그리스 세계로 흘러들어갔으므로, 고대 그리스 서적의 번역과 연구는 고대 페르시아

를 복원하려는 시도와 그 의미가 같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대 그리스 서적의 번역은 바그다드의 귀족 세력과 인민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유력한 활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압바스 왕조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되었다. 이런 설명에 의하면 번역 운동은 압바스 왕조의 2대 칼리프인 알-만수르(al-Mansūr: 재위, 754-775) 때부터 이미 국가의 중요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니, 7대 칼리프 알-마문과 지혜의 집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그리스어-아랍어 번역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에서 이 점은 분명히 언급된다. “지혜의 집은 도서관이었으며, 알-만수르 치세에 사산 왕조의 행정부를 모델로 삼은 압바스 왕조 행정부의 일부로, 하나의 ‘부서’로서 설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알-마문 치세에 지혜의 집은 천문학이나 수학에 대한 활동과 관련된 추가의 기능을 하게 된 것 같다. … 그리스어-아라비아어 번역 운동은 지혜의 집의 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리스 문헌의 아라비아어 번역에 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수십 건의 보고 가운데 지혜의 집을 언급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다”(86-87쪽).

저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추진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이론 및 실용 지식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 변화가 번역 운동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번역 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 관계가 개입되어 학문의 수요 증가와 번역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을 내린다. 이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었던 대로 번역을 통해 고대 그리스의 학문이 아랍 세계로 유입된 후, 이것이 원인이 되어 아랍의 다양한 학문이 융성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상반된다. 이러한 통념은 아랍 학문의 창조적 성취를 고대 그리스 유산의 번역이라는 학문적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 또는 조금 확대해서 이해하자면 그것에 종속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사브라(A. I. Sabra)는 이를 아랍 세계에 의한 그리스 과학의 ‘전유(appropriation)’로 개념화 한 바가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해 아랍 문명이 그리스 학문을 ‘수용’했다거나 ‘보존’했다는 유럽 중심주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은근히 노예적인”(298쪽 에필로그 미주 1) 표현이라고 비판하면서, 초기 압바스 왕조 사회의 과학과 철학 전통의 창조 과정을 ‘있는 그대로’ 조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저자의 비판적 입장에서 볼 때, ‘전유’ 개념은 아랍 과학의 쇠퇴를 설명하는

‘주변부 논제’와 짝패를 이룬다. 이 논제에 의하면, 전쟁, 경제적 위기 등의 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아랍 세계의 근본주의적 경향이 대두되면서 아랍 세계는 외래 학문을 적대시하게 되었고, 그것을 문명의 주변부로 몰아내 결국 아랍 과학의 쇠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설명에는 아랍 세계에 종교와 결부된 어떤 ‘정통’이 중심에 있어 왔고, 그 중심의 상황에 따라 학문을 ‘수용’(혹은 ‘전유’)하거나 ‘배척’한다는 전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이슬람 정통”은 어떤 의미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성’과 대척점에 있는 ‘신앙’을 발견할 수도 없다. 전해지는 사료에 근거해서 볼 때, 그리스 과학에 비판적인 견해는 번역 운동이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무렵에도 제기되었고, 그 입장도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적 ‘정통’이라는 가상의 단일한 입장으로 묶어 아랍 과학의 쇠퇴와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관점은 시대착오적이고 몰역사적이다. 저자는 이런 견해의 원조로 볼 수 있는 골드지헤르(I. Goldziher)의 역사 해석을 강력히 비판한다. “골드지헤르가 언급하는 고대인의 학문에 대한 이른바 적대적 태도와 관련된 여러 군데 흠어진 보고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문맥을 잡아주지 않으면 좋게 봐서 의미가 없고, 나쁘게 보면 심각한 오해를 유도한다”(234쪽).

‘주변부 논제’에 대해 비판적인 논자들도 그 동안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논제의 효용은 그것이 아랍 과학의 쇠퇴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이었는 데, ‘주변부 논제’의 관점과 전제를 정면 비판하는 저자는 어떻게 아랍 과학의 쇠퇴를 설명할 수 있을까? 저자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그 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것은 서기 1,000년 이후 아랍 과학의 ‘쇠퇴’로 간주되었던 변화를 아랍 세계가 고대 그리스의 학문을 정전으로 여기는 상태에서 나아가 아랍의 독자적 전통을 구축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슬람의 번역 활동이 뜸해지면서 그리스 학문에 대해 도전적인 논의가 차차 등장했으나, 이는 아랍 문명이 독자적인 학문 저술을 할 역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외래 학문을 상대화해서 평가하는 경향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논의가 또 다른 ‘통설’로 정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저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핵심은 사료가 제공하는 세부 사항에 있으나, 그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자가 분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료를 꼼꼼히 독해했다 하더라도 이 책은 어느 정도 시론적인 성

격에 머물 수밖에 없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적어도 개론 수준에서 알고 있는 아랍 과학에 대한 상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물론 과학사를 포함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이 보기에 이 책에서 제시하는 논점이 ‘역사적 관점’으로 과거를 이해할 때 유의해야 할 일반적인 측면에 다름 아니라는 것은 금세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 여태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많은 과학사 개론서에서 아랍의 과학에 대한 서술의 기본적인 논조는 크게 변함이 없었을까? 연구할 사료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연구자가 부족하거나 과학사의 현재 연구 경향과 동떨어진 분야의 경우에 ‘몰역사적’ 통념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를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다. 전문 번역가의 손을 거쳐 국내에 소개된 이 저작이 반갑고 고맙긴 하지만, 과학사 연구자에 의해 번역이 되었다라면 약간은 뜬금없는 부록 대신 아랍 과학사 연구의 성과 속에서 이 저작의 위치와 학계의 반응 등을 잘 정리한 역사해제를 볼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런 작업만으로도 국내의 과학사 개론서 서술의 방향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쉬움이 남는다.

¹ 2013년에 출판된 케임브리지 과학사 시리즈의 2권 중세 과학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F. Jamail Ragep, “Islamic Culture and the Natural Sciences,” in David C. Lindberg and Michael H. Shank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Science vol. 2 Medieval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 27-61 중 특히 p. 37 각주 28 참조.